

2004년 임금교섭 실태 및 노조성취율 비교

김복순*

임금교섭은 노사간의 분배의 몫을 결정한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금교섭의 결과는 기업경쟁력 제고 및 나아가 국민경제적·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임금교섭은 노사 쌍방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면서 협상국면이 시작되어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임금교섭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교섭준비→교섭진행→교섭결렬과 쟁의행위→교섭타결」 등의 단계를 거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임금교섭은 매년 실시되고 있고, 임금교섭을 제외한 단체교섭은 2년에 한번씩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나라의 임금교섭비용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¹⁾

본고에서는 사업체패널조사를 통해 2004년 임금교섭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준비→교섭→결과)에서 나타나는 노사 양측이 요구(제시)한 임금인상률, 최종타결률을 산업별, 규모별, 상급단체소속 여부별로 비교분석한 후, 임금교섭 전과정에 대한 노사양측의 평가가 어떠한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저항곡선(최초임금인상요구율-타결률)과 양보곡선(타결률-최초제시율)을 도출하고 노조성취율을 추정하여 2004년도 임금교섭 결과가 노사양측 중 어느 쪽에 효과적이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노사양측이 요구(제시)할 2005년도 임금인상률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에 사용된 사업체패널조사는 우리나라 사업체를 대표하는 소수표본사업체를 매년 주기적으로 심층조사함으로써 경제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및 국제화 시대의 산업구조에 부응하는 우리 기업의 노동수요 및 인적자원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나아가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팀 연구원

1) 안주엽 외 4인, 『2004년 임단협 및 임금체계 변화실태 종합분석』, 노동부, 2004.

고용정책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사업체패널조사는 크게 본조사와 부가조사로 구분되어 있는데, 본조사는 인사담당자가 응답하는 설문(전반적인 경영환경 및 인사관리, 고용현황, 교육훈련, 보상 등)과 노무담당자·근로자대표가 응답하는 전반적인 노사관계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 이슈에 따라 부가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지금까지는 임금교섭, 비정규직 실태, 모성보호 등과 관련된 주제로 부가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사업체는 2004년에 ‘임금교섭’ 주제로 실시된 사업체패널 부가조사 응답사업체 중 노동조합을 통해서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사업체와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²⁾ 노사협의회는 본 연의 의미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노동조합과는 성격을 달리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체의 경우 임금인상이 노사협의회를 통해 진행된다면 앞에서 언급한 일련의 임금교섭과정을 거쳐 임금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므로 분석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겠다.

분석대상 712개 사업체 중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사업체는 438개(61.5%)이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사업체는 274개(38.5%)이며, 제조업(57.4%)보다는 서비스업(68.0%)에서 임금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이 결정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서비스업³⁾ 분야 중에서도 유통서비스업에서의 임금교섭 의존도는 91.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건설업에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조합을 통해 조직적으로 임금교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대상 사업체의 산업별·규모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4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이 43.4%, 건설업이 4.9%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도 경공업과 금속자동차운송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체 규모별

2) 사업체패널 조사 중 ‘임금교섭’을 주제로 실시된 부가조사는 동일한 설문문항을 노무담당자와 근로자 대표에게 각각 물어보는 방식으로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는 노무담당자 응답 사업체(1,542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다만 노사양측의 임금인상요구(제시)율,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율은 노무담당자와 근로자 대표 응답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3) 개인서비스업은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가사서비스업·기타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은 운수·통신업, 사업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부동산 및 임대업·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은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보건 및 사회복지사업·교육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로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가 39.5%,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가 23.9%, 500인 이상 사업체가 21.2% 순으로 나타난다.

I. 임금교섭 준비: 근로자측의 임금인상요구율과 사용자측의 임금인상제시율

분석대상 사업체 중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분리 진행하여 분리 타결하는 사업체가 4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임단협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체가 41.8%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제조업(41.7%)에 비해 서비스업종(43.1%)에서의 임단협을 동시에 진행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개인서비스업(47.1%)과 사회서비스업(46.9%)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교섭만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체의 임금교섭 구조⁴⁾를 보면 기업별교섭이 81.4%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 공동교섭(8.5%), 산업별 교섭(7.1%), 대각선교섭(2.8%) 순으로 나타나 산업별 교섭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금교섭 구조에서 업종별 공동교섭이나 산업별 교섭 등 공동교섭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종에서의 업종별 공동교섭이나 산업별 교섭이 활발하며, 유통서비스업에서의 업종별 공동교섭이 전산업 중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임금교섭은 기업별 교섭으로만 이뤄지고 있고,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산업별 교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고 있다.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사업체들이 여전히 기업별 교섭을 가장 바람직한 교섭구조로 여기고 있는 반면, 업종별 공동교섭이나 산업별 교섭을 선호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체패널조사를 통해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통해 당해연도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사업체의 거의 대부분(91.7%)이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1년으로 나타났으며 최장 4년까지 유효한 사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응답사업체의 43.7%가 2년, 31.2%가 1년으로 나타났으며 최장 5년까지 유효한 사업체도 있어 산업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이나 소규모 사업체에서 단체협약의 유효

4) 단체교섭은 노사간의 교섭력을 배경으로 하는 거래와 협상으로서 단체교섭의 유형은 노조의 조직형태, 산업구조, 노사관계에 대한 시각 등에 따라 상이하며, 여기에는 기업별 교섭, 산업별 교섭, 대각선 교섭, 공동교섭, 집단교섭 등이 있다.

〈표 1〉 2004년 임금교섭 구조

(단위: 개, %)

	표본 사업체	응답 사업체	기업별 교섭	업종별 공동교섭	산업별 교섭	지역별 공동교섭	대각선 교섭
전 체	712	435	81.4	8.5	7.1	0.2	2.8
산업별 분포							
광공업	355	202	91.1	3.5	4.5	0.0	1.0
제조업	352	200	91.0	3.5	4.5	0.0	1.0
경공업	106	72	88.9	6.9	4.2	0.0	0.0
화학공업	66	36	97.2	2.8	0.0	0.0	0.0
금속자동차운송업	106	63	88.9	0.0	7.9	0.0	3.2
전기전자정밀업	74	29	93.1	3.4	3.4	0.0	0.0
서비스업	309	209	70.3	13.9	10.5	0.5	4.8
개인서비스업	73	34	85.3	5.9	2.9	0.0	5.9
유통서비스업	89	81	59.3	32.1	3.7	1.2	3.7
사업서비스업	81	51	74.5	0.0	17.6	0.0	7.8
사회서비스업	66	43	74.4	2.3	20.9	0.0	2.3
건설업	35	12	91.7	8.3	0.0	0.0	0.0
기타	16	14	100.0	0.0	0.0	0.0	0.0
규모별 분포							
30인 미만	17	6	100.0	0.0	0.0	0.0	0.0
30~99인	170	70	85.7	10.0	4.3	0.0	0.0
100~299인	281	167	80.2	10.8	4.8	0.6	3.6
300~499인	93	70	80.0	10.0	8.6	0.0	1.4
500인 이상	151	122	80.3	4.1	11.5	0.0	4.1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고 있다.

매년 임금교섭 시기가 되면 노사단체(한국경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는 당해연도 임금인상요구율과 제시율을 발표한다.⁵⁾ 앞에서 살펴본 임금교섭구조를 가진 사업체들이 임금교섭과정의 첫 단추인 교섭준비단계에서 상대방측에 요구(제시)할 임금인상률을 산정한다.

사업체패널조사에 의한 2004년도 근로자측이 사용자측에 요구한 최초임금인상요구율은 통상임금 기준 10.3%(총액임금 기준 9.4%)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금속자동차운송업과 사회서비스업이 각각 11.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유통서비스업(10.7%), 건설업(10.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측에서 임금동결을 요구한 사업체도 4.4%를 차지했으며 이 중 25.5%가 유통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급단체에 소속된 사업체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은 상급단체소속 여부에 따라 임금인상요구율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5) 2004년 임금인상요구율은 한국노총 10.7%, 민주노총 10.5%이었으며, 한국경총의 임금인상제시율은 3.8%(300인 이상 기업은 동결) 이었다.

〈표 2〉 근로자측의 최초임금인상요구율

(단위: 개, %)

	표본 사업체	응답 사업체	평균	요구율 분포			상급단체 소속 여부	
				동결	10% 미만	10% 이상	무소속	상급단체
전 체	712	546	10.3	4.4	26.6	69.0	8.6	11.0
산업별 분포								
광공업	355	277	10.3	3.2	24.5	72.2	8.8	11.1
제조업	352	275	10.3	3.3	24.7	72.0	8.8	11.0
경공업	106	85	9.9	5.9	21.2	72.9	6.7	10.7
화학공업	66	48	10.2	0.0	29.2	70.8	8.7	10.9
금속자동차운송업	106	90	11.1	1.1	24.4	74.4	10.1	11.6
전기전자정밀업	74	52	9.6	5.8	26.9	67.3	8.6	10.7
서비스업	309	235	10.1	5.5	30.2	64.3	8.5	10.7
개인서비스업	73	54	9.2	7.4	33.3	59.3	7.6	10.6
유통서비스업	89	69	10.7	8.7	23.2	68.1	11.2	10.6
사업서비스업	81	63	9.4	3.2	39.7	57.1	8.4	9.8
사회서비스업	66	49	11.1	2.0	24.5	73.5	8.9	12.0
건설업	35	21	10.6	9.5	19.0	71.4	8.3	13.2
기타	16	15	12.1	0.0	13.3	86.7	12.5	12.0
규모별 분포								
30인 미만	17	11	7.5	9.1	63.6	27.3	7.2	7.8
30~99인	170	105	10.1	3.8	31.4	64.8	9.2	11.3
100~299인	281	216	9.7	6.9	25.9	67.1	8.0	10.4
300~499인	93	80	11.1	2.5	18.8	78.8	9.6	11.4
500인 이상	151	134	11.0	1.5	25.4	73.1	8.8	11.5

〈표 3〉 사용자측의 최초임금인상제시율

(단위: 개, %)

	표본 사업체	응답 사업체	평균	제시율 분포			상급단체 소속 여부	
				동결	4% 미만	4% 이상	무소속	상급단체
전 체	712	606	4.1	28.1	17.3	54.6	5.4	3.2
산업별 분포								
광공업	355	314	4.3	22.9	15.0	62.1	5.4	3.6
제조업	352	311	4.3	23.2	14.8	62.1	5.4	3.6
경공업	106	96	2.9	38.5	15.6	45.8	5.0	2.0
화학공업	66	56	4.3	23.2	21.4	55.4	4.7	4.1
금속자동차운송업	106	93	5.1	14.0	11.8	74.2	5.3	5.0
전기전자정밀업	74	66	5.3	13.6	12.1	74.2	6.3	3.9
서비스업	309	254	3.5	35.0	20.5	44.5	5.2	2.6
개인서비스업	73	60	4.5	25.0	13.3	61.7	5.2	3.7
유통서비스업	89	67	2.4	56.7	17.9	25.4	4.6	2.1
사업서비스업	81	73	4.2	21.9	28.8	49.3	5.8	3.2
사회서비스업	66	54	3.0	37.0	20.4	42.6	4.5	1.9
건설업	35	28	5.8	28.6	3.6	67.9	6.9	4.0
기타	16	13	3.8	7.7	46.2	46.2	5.9	3.4
규모별 분포								
30인 미만	17	14	3.6	14.3	42.9	42.9	3.6	3.8
30~99인	170	139	5.1	20.1	12.2	67.6	6.0	3.5
100~299인	281	236	3.9	33.1	13.1	53.8	5.2	3.1
300~499인	93	80	4.3	22.5	25.0	52.5	6.2	3.8
500인 이상	151	137	3.1	32.1	22.6	45.3	4.4	2.7

한편, 사용자측에서 제시한 최초임금인상제시율은 통상임금 기준 4.1%(총액임금 기준 3.9%)로 나타났으며, 건설업이 5.8%로 가장 높은 반면, 유통서비스업(2.4%), 경공업(2.9%)이 가장 낮은 제시율을 보이고 있다. 임금동결을 제시한 사업체도 28.1%로 나타났으며, 10% 이상의 임금인상을 제시한 사업체도 8.3%를 차지하였다. 또한 임금삭감을 제시한 사업체도 4개 사업체로 최대 25.4%까지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제시한 사업체도 있었다.

근로자측에서 <표 4>에 정리된 최초임금인상요구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물가상승률(48.8%)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동종업종 임금상승률(15.2%), 상급단체 지침(14.3%), 생산성 증가(6.8%), 생활급적 요소(6.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단체 지침에 의존하는 비중이 금속자동차운송업, 사회서비스업,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사단체가 발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적 성격을 지닌 임금지침이 개별 기업 또는 업종별 공동교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자측에서 제시한 임금인상제시율의 주된 결정요인으로는 물가상승률이 2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기업의 기대수익 상승(23.8%), 생산성 증가(16.3%)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급단체 지침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4> 노사양측의 산업별 임금인상요구율 및 제시율 결정요인

(단위: 개, %)

	표본 사업체	응답 사업체	물가 상승률	생산성 증가	기업의 기대수 익상승	동종업종 임금 상승률	전년도 임금 상승률	생활급 적 요소	노동시 장상황	상급단체 지침
최초임금인상요구율 결정요인										
전 체	712	512	48.8	6.8	4.9	15.2	3.3	6.1	0.6	14.3
제조업	352	258	45.7	7.8	3.9	15.9	5.0	5.4	0.8	15.5
서비스업	309	218	50.9	6.0	6.4	15.1	1.8	6.9	0.5	12.4
건설업	35	21	61.9	9.5	0.0	19.0	0.0	4.8	0.0	4.8
기타	16	15	53.3	0.0	6.7	0.0	0.0	6.7	0.0	33.3
최초임금인상제시율 결정요인										
전 체	712	560	28.6	16.3	23.8	15.7	3.8	2.0	5.2	4.8
제조업	352	285	28.8	21.4	18.6	16.8	4.2	1.4	6.3	2.5
서비스업	309	236	28.8	10.6	29.7	14.8	3.8	3.0	3.0	6.4
건설업	35	27	29.6	18.5	18.5	18.5	0.0	0.0	7.4	7.4
기타	16	12	16.7	0.0	41.7	0.0	0.0	0.0	16.7	25.0

앞에서 살펴본 임금교섭 시작전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준비한 임금인상률간의 격차는 6.5%포인트로 나타났으며, 제조업(6.2%포인트)에 비해 서비스업중(6.9%포인트)에서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을 통해서 노사양측이 요구(제시)한 최초임금인상률 격차는 제조업의 경우 경공업이, 서비스업의 경우 사회서비스업과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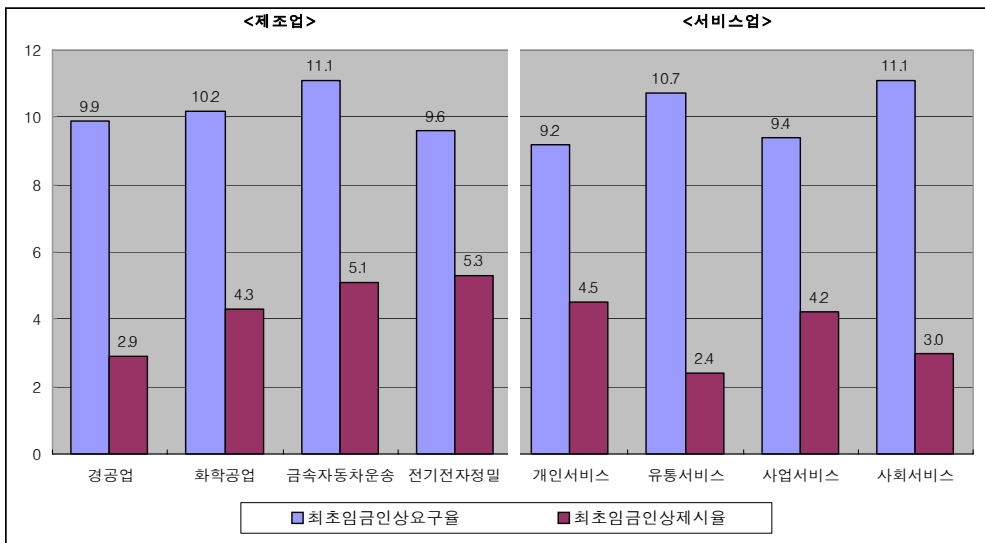
서비스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급단체소속 여부에 따라 노사양측이 요구(제시)한 임금인상률 격차는 7.7%포인트로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업체의 3.6%포인트보다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최초임금인상요구율과 최초임금인상제시율의 격차는 어떤 형태로든 노사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조정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이다.

2004년 정부는 노사정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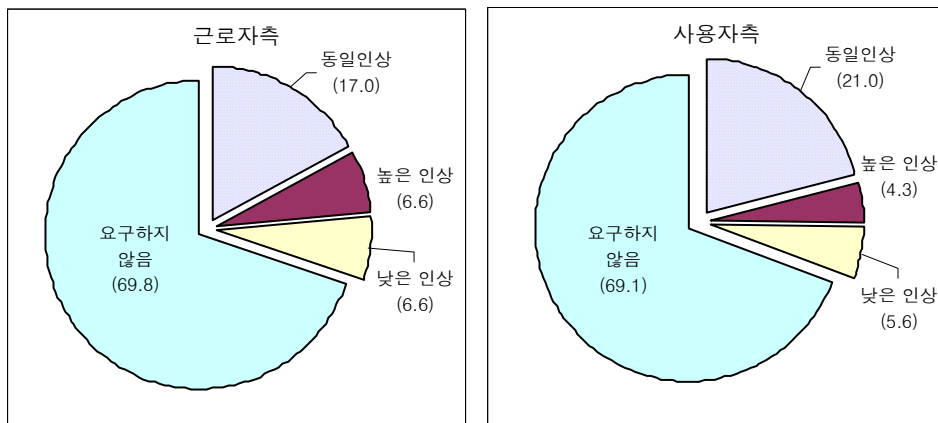
[그림 1] 산업별 최초임금인상요구율과 최초임금인상제시율 격차

(단위: %)



[그림 2] 임금교섭시 비정규근로자 고려여부

(단위: %)



를」의 제정안과 「과건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등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연내처리가 유보되어 2005년 임단협에서 이슈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교섭시 노사양측에서 비정규근로자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지를 사업체패널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근로자측의 경우 임금교섭시 비정규근로자를 고려하는 사업체는 비정규활용사업체(305개) 중 30.2%로 나타났으며, 사용자측의 경우 비정규활용사업체(324개) 중 30.9%로 나타났다. 즉 임금교섭시 비정규근로자를 배제하는 사업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교섭이 주류인 우리나라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II. 임금교섭과정: 임금교섭횟수와 교섭기간

임금교섭과정은 현상적으로 임금인상률의 결정과정이지만 노사관계의 성격이 집약적으로 표현되는 장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임금교섭과정에서 드러나는 교섭비용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임금교섭횟수와 임금교섭기간, 노사분쟁으로 나누어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응답사업체의 임금교섭횟수는 평균 7.4회로 나타났으며, 상급단체소속 사업체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교섭횟수가 상대적으로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노총소속 사업체의 임금교섭횟수는 평균 9.1회로 한국노총소속 사업체의 6.8회 보다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에서의 교섭횟수가 더 많고, 금속자동차운송업은 11.1회로 전산업 중 가장 많은 교섭횟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교섭횟수 또한 많아지고 있다.

임금교섭과정의 또다른 지표인 임금교섭기간은 평균 59.2일로 나타났으며, 상급단체소속 사업체, 특히 민주노총소속 사업체의 교섭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교섭기간이 73.8일로 가장 오랫동안 임금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교섭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양측이 요구(제시)한 최초임금인상률의 격차가 클수록 임금교섭횟수가 잦고, 임금교섭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산업별 교섭을 하는 사업체가 여타 다른 임금교섭 구조를 가진 사업체에 비해 임금교섭횟수(14.2회)와 임금교섭기간(119.7일)이 긴 것으로 나타나 교섭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겠다.⁶⁾ 이러한 임

6) 2003년 사업체패널 '임금교섭' 부가조사에서는 산업별 교섭이 3.6%로 나타나 산업별 교섭구도가 점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별 교섭으로의 전환을 정부는 교섭력 증가에 따른 파업

〈표 5〉 교섭횟수 및 교섭기간

(단위: 개, %)

	응답 사업체	교섭횟수					교섭기간				
		평균교 섭횟수	상급단체소속 여부				평균교 섭기간	상급단체소속 여부			
			무소속	상급단체		무소속		상급단체			
			한국 노총	민주 노총			한국 노총	민주 노총			
전 체	438	7.4	4.8	7.6	6.8	9.1	59.2	48.2	59.8	58.4	62.5
산업별 분포											
광공업	204	8.0	5.3	8.0	6.9	11.2	54.6	37.0	55.0	53.4	59.3
제조업	202	8.0	5.3	8.1	6.8	11.4	54.5	37.0	54.9	53.4	58.9
경공업	73	6.7	3.0	6.8	7.0	5.6	60.9	23.0	61.5	66.8	33.7
화학공업	36	5.9	8.0	5.9	5.0	8.4	51.2	55.0	51.1	46.4	64.1
금속자동차운송업	63	11.1	6.0	11.2	9.4	13.6	56.0	30.0	56.4	49.6	65.8
전기전자정밀업	30	7.0	4.0	7.1	4.5	16.7	39.1	40.0	39.1	31.1	67.0
서비스업	210	6.9	4.6	7.1	6.8	7.6	64.3	44.4	66.0	66.1	65.7
개인서비스업	34	6.8	3.0	6.9	6.2	10.2	60.8	20.0	62.1	61.2	66.8
유통서비스업	81	6.8	5.2	7.0	6.9	7.2	65.5	56.8	66.1	67.9	56.6
사업서비스업	52	6.0	3.3	6.2	6.5	5.9	59.6	26.8	62.4	62.0	62.7
사회서비스업	43	8.4	5.4	8.8	8.7	8.9	70.7	51.0	73.4	77.3	72.0
건설업	12	6.8	5.0	7.0	3.0	7.9	73.8	150.0	66.8	62.5	67.8
기타	14	6.6	0.0	6.6	6.3	7.2	39.7	0.0	39.7	35.5	46.4
규모별 분포											
30인 미만	6	3.5	3.0	3.6	5.0	2.7	40.3	20.0	44.4	45.0	44.0
30~99인	71	5.7	3.5	6.0	5.7	6.6	59.6	49.6	60.9	68.8	47.7
100~299인	168	6.7	5.0	6.7	6.6	7.1	56.7	51.3	56.9	56.7	57.6
300~499인	71	6.9	12.0	6.8	6.6	7.4	57.5	109.0	56.8	57.1	55.9
500인 이상	122	9.9	5.3	10.1	8.2	12.1	64.3	38.8	65.6	57.0	74.2

주: 분석대상 사업체 중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교섭을 하는 사업체에 한함.

금교섭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교섭비용(임금교섭횟수와 교섭기간)에 대해 노사양측 모두 적정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한편, 임금교섭과정 중 노사분쟁이 일어나 파업에 이른 사업체는 30개 사업체로 이 중 제조업이면서 500인 이상 사업체가 21개로 70.0%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파업기간은 16.1일이었으며, 건설업의 경우 최장 135일까지 파업을 한 사업체도 있었다.

이와 같은 임금교섭과정 전반에 나타난 노사양측의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근로자측의 경우 사용자측의 태도가 '보통이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44.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합리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39.5%로 나타났다. 사용자측의 경우 근로자측의 태도가 '합리적이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절반 이상(53.8%)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보통이었다'가 35.2%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사양측은 임금교섭과정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기업은 이중교섭으로 교섭비용의 증가라는 부작용 때문에 소극적이지만, 교섭의 집중화, 이로 인한 교섭당사간의 거시적인 안목으로 교섭에 임하게 된다는 장점도 있다.

의 자신들의 태도가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III. 임금교섭 결과: 임금인상타결률

임금교섭을 통해 노사협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조건은 근로자측의 제안보다 못하고 사용자측의 최초 제안보다 나은 것이 보통이다. 즉 단체교섭과정에서 근로자측의 요구는 하향조정되고 사용자측의 제안은 상향조정되게 된다.

사업체패널조사를 통해 파악된 임금교섭과정의 결과물인 임금인상타결률은 통상임금 기준 5.5%(총액임금 기준 5.2%)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5.9%)이 서비스업(4.9%)에 비해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비스업에서

〈표 6〉 임금인상타결률

(단위: 개, %)

	표본 사업체	응답 사업체	평균 인상률	동결	상급단체소속 여부			
					무소속	상급단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 체	712	710	5.5	17.5	5.8	5.1	5.4	4.7
산업별 분포								
광공업	355	354	5.9	14.7	5.8	6.0	6.0	6.0
제조업	352	351	5.9	14.8	5.8	6.0	6.0	6.0
경공업	106	105	4.7	23.8	4.4	5.1	5.4	3.0
화학공업	66	66	5.6	15.2	5.3	6.2	6.6	5.0
금속자동차운송업	106	106	7.1	4.7	7.1	7.2	6.9	7.7
전기전자정밀업	74	74	5.9	16.2	6.2	5.4	5.4	5.5
서비스업	309	308	4.9	21.8	5.5	4.3	4.7	3.6
개인서비스업	73	73	5.4	16.4	5.2	5.6	5.5	5.9
유통서비스업	89	89	4.5	33.7	5.0	4.3	4.6	2.0
사업서비스업	81	80	4.9	17.5	5.7	3.8	3.6	4.1
사회서비스업	66	66	5.0	16.7	6.2	3.7	4.9	3.3
건설업	35	35	6.9	14.3	6.9	6.9	10.3	6.1
기타	16	16	5.6	0.0	7.7	4.6	4.5	5.0
규모별 분포								
30인 미만	17	16	4.3	12.5	4.1	4.8	5.0	4.5
30~99인	170	170	5.9	19.4	6.1	5.2	6.3	3.8
100~299인	281	281	5.5	19.6	6.0	4.9	5.2	4.0
300~499인	93	93	5.9	18.3	6.6	5.6	6.0	4.2
500인 이상	151	150	4.9	11.3	4.4	5.1	4.8	5.5

7) 임금교섭과정에서 나타난 상대측의 태도를 평가하는 유효사업체는 사용자측의 근로자측 평가는 688개, 근로자측의 사용자측 평가는 488개 사업체이다.

의 임금인상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별로 보면, 금속자동차운송업(7.1%)이 가장 높은 임금인상률을 보였으며, 건설업(6.9%)이 그 다음으로 높은 편이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의 임금인상률이 중소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사업체의 상급단체소속 여부에 따라 임금인상타결률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급단체소속 사업체의 경우 임금인상률이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민주노총소속 사업체의 경우 임금인상률이 4.7%로 한국노총소속 사업체에 비해 0.7%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교섭과정에서 파악된 교섭횟수와 교섭기간을 고려해 볼 때 상급단체소속 사업체가 임금교섭횟수와 임금교섭기간이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많은 반면, 임금인상타결률은 낮은 편이어서 상급단체소속 사업체에서 비효율적인 임금교섭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임금교섭이 효과적으로 이뤄졌는가는 임금타결률 자체보다는 교섭준비단계에서 요구(제시)한 노사측의 최초인상률과 타결률의 차이를 보는 것이 더 의미있을 것이다. <표 7>에서의 저항곡선은 노동조합이 최초로 제시한 요구율을 임금교섭과정에서 낮추어 타결에 이르는 과정을 나타내며, 양보곡선은 사용자측이 임금교섭과정에서 최초로 제시한 제시율을 올리며 타결에 이르는 과정을 요약한 곡선이다. 즉, 근로자측에서는 저항곡선을 낮출수록, 양보곡선을 높일수록 임금교섭과정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노조성취율은 통상적으로 노조요구율 대비 임금인상타결률의 비율을 사용하지만 본고에서는 사용자측의 제시율로부터 얼마나 더 높은 인상률로 타결했느냐가 임금교섭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임금인상타결률-사용자측 최초임금인상제시율)/(근로자측 최초임금인상요구율-사용자측 최초임금인상제시율)*100으로 추정하였다. 여기서의 노조성취율은 임금측면에서 노조가 성취한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7>은 사업체패널조사를 통해 산정한 근로자측의 저항곡선과 사용자측의 양보곡선, 노조성취율을 정리한 것이다. 저항곡선인 최초임금인상요구율과 임금인상타결률과의 차이는 4.8%포인트로 나타났으며, 상급단체소속 사업체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1.7%포인트 높음을 알 수 있다. 양보곡선인 임금인상타결률과 최초임금인상제시율의 차이는 1.7%포인트로 나타나 사용자측의 최초임금인상제시율에다 1.7%포인트 높아진 임금인상률에서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양보곡선을 통해서만 임금교섭 결과를 보면 상급단체소속 사업체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업체보다 2.2%포인트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근로자측에서 더 효과적인 임금교섭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조성취율을 통해서 볼 때 최종타결된 인상률은 평균적으로 사용자측의 최초임금인상제시율에서 29.7%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측보다는 사용자측에 유리한 임금교섭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임금교섭 결과에 대한 사용자측의 평가는 응답사업체의 25.8%만이 임금인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58.7%가 ‘불만족스러운 편’이라고 응답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수(불만족+매우 불만족 71.3%)가 임금교섭 결과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유통서비스업(81.6%)과 경공업(80.8%), 사업체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임금인상타결률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임금교섭 타결 이후 노사관계 변화를 보면, 노사양측 모두 임금교섭 이후 노사관계가 ‘변화없었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많고, 노사관계가 ‘좋아졌다(너무 좋아짐+좋아짐)’는 비중이 노사 각각 31.4%, 31.6%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자측의 경우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3.7%를 차지하여 사용자측에 비해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저항곡선·양보곡선·노조성취율

(단위: %포인트, %)

	저항곡선					양보곡선					노조성취율					
	전체	상급단체소속 여부				전체	상급단체소속 여부				전체	상급단체소속 여부				
		무소속	상급단체		무소속		상급단체		무소속	상급단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체	4.8	3.8	5.5	5.3	6.1	1.7	1.2	2.2	2.3	2.0	29.7	33.7	26.8	28.5	23.2	
산업별 분포																
광공업	4.4	3.9	4.9	5.1	4.5	1.7	1.1	2.4	2.5	2.3	33.9	38.3	30.2	30.7	28.8	
제조업	4.4	3.9	4.9	5.0	4.3	1.7	1.1	2.4	2.4	2.4	34.0	38.3	30.4	30.7	29.4	
경공업	5.1	4.3	5.6	5.8	4.4	2.0	1.1	2.7	2.7	2.7	34.5	38.8	31.8	31.8	31.7	
화학공업	4.1	3.7	4.3	4.1	5.2	1.5	0.7	2.6	2.9	1.6	32.4	28.8	35.7	38.8	23.1	
금속자동차운송업	4.2	4.2	4.2	4.4	3.8	1.9	1.5	2.4	2.2	2.7	28.8	29.4	28.2	27.5	29.5	
전기전자정밀업	3.9	3.0	5.2	5.2	5.1	1.2	0.8	1.8	1.8	1.7	45.0	62.1	26.2	24.1	32.0	
서비스업	5.2	3.9	6.1	5.6	6.9	1.7	1.4	2.0	2.1	1.8	25.2	26.9	24.2	26.0	21.4	
개인서비스업	4.0	2.7	5.5	5.0	7.7	1.5	1.3	2.0	1.7	2.9	27.0	23.7	30.4	30.4	30.5	
유통서비스업	6.1	5.3	6.4	6.3	6.5	2.5	2.6	2.5	2.6	1.9	31.3	39.5	28.0	28.9	22.2	
사업서비스업	4.2	3.8	4.6	4.0	5.0	1.1	1.0	1.1	1.1	1.1	19.6	23.2	16.8	15.4	18.1	
사회서비스업	6.6	4.6	7.8	6.2	8.3	1.8	1.3	2.1	2.2	2.1	22.4	23.6	21.7	22.3	21.5	
건설업	4.1	2.3	6.1	2.3	7.0	1.5	0.6	3.1	7.8	2.0	31.8	37.7	25.9	68.3	8.9	
기타	6.3	5.3	6.7	6.1	8.3	1.0	0.0	1.2	1.3	0.9	11.7	0.0	12.8	13.8	10.0	
규모별 분포																
30인 미만	2.7	2.2	3.8	3.0	4.5	0.7	0.6	1.1	1.6	0.5	17.5	11.8	26.9	35.4	10.0	
30~99인	4.3	3.5	6.3	6.0	6.7	1.4	1.1	2.2	2.6	1.7	38.1	39.6	34.9	44.7	21.4	
100~299인	4.4	3.4	5.2	5.1	5.3	1.8	1.2	2.4	2.6	1.7	31.8	37.6	27.5	29.0	20.5	
300~499인	4.9	4.5	5.1	4.8	5.8	1.7	1.4	1.8	2.0	1.2	26.4	24.9	27.0	29.0	21.4	
500인 이상	5.9	5.5	6.2	5.9	6.4	1.9	1.2	2.2	1.9	2.6	23.4	23.6	23.3	21.2	25.5	

주: 저항곡선=최초임금인상요구율-임금인상타결률
 양보곡선=임금인상타결률-최초임금인상제시율
 노조성취율=(임금인상타결률-최초임금인상제시율)/(최초임금인상요구율-최초임금인상제시율)*100

IV. 2005년 노사양측의 임금인상요구(제시)율 전망

2005년도는 비정규직 확대, 불안정 노동 및 임금격차 심화 등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2004년도에 해결하지 못한 노사정 각 주체간에 비정규직 등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주40시간제는 2005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무원, 지자체 등에서 시행되므로 임금 및 휴일, 휴가 보전을 둘러싼 노사간의 교섭이 임단협의 주요 핵심과제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표 8>은 이러한 현실에서 2005년 임금교섭에서 노사양측이 요구(제시)할 임금인상률 예상치를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상급단체 여부별로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2005년 임금교섭 시작 전에 근로자측이 요구할 임금인상률은 평균 8.2%로 2004년 최초임금인상요구율에 비해 2.1%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단체에 소속된 사업체

<표 8> 2005년 임금교섭시 노사양측의 임금인상요구(제시)율 전망

(단위: 개, %)

	표본 사업체	평균요구율						평균제시율					
		응답 사업체	평균 요구율	무소 속	상급단체		응답 사업체	평균 제시율	무소 속	상급단체			
					한국 노총	민주 노총				한국 노총	민주 노총		
전 체	712	569	8.2	7.7	8.6	8.6	8.7	539	3.8	3.9	3.7	3.8	3.6
산업별 분포													
광공업	355	292	8.2	7.7	8.6	8.5	9.2	278	3.9	4.1	3.6	3.9	2.7
제조업	352	289	8.1	7.8	8.5	8.4	9.0	276	3.9	4.1	3.6	3.9	2.6
경공업	106	85	7.6	7.2	7.9	7.8	8.4	84	3.2	3.4	3.1	3.4	1.2
화학공업	66	51	7.7	7.9	7.5	7.5	7.4	51	4.0	4.7	3.0	3.3	1.8
금속자동차운송업	106	95	8.7	8.2	9.2	8.9	9.8	87	4.2	3.8	4.7	4.9	4.4
전기전자정밀업	74	58	8.4	7.7	9.6	9.8	9.0	54	4.4	5.0	3.2	4.0	1.0
서비스업	309	240	8.1	7.5	8.6	8.8	8.1	226	3.6	3.3	3.8	3.6	4.2
개인서비스업	73	56	7.6	6.6	9.5	9.8	8.0	58	3.3	3.1	3.6	4.2	1.0
유통서비스업	89	75	8.9	9.2	8.8	9.1	7.0	67	3.4	4.1	3.1	2.9	4.1
사업서비스업	81	60	7.6	8.0	7.1	7.6	6.7	58	3.8	3.3	4.5	5.5	3.5
사회서비스업	66	49	7.9	6.7	8.8	6.8	9.5	43	3.7	2.6	4.6	2.4	5.3
건설업	35	25	8.9	8.0	10.0	10.5	9.9	26	4.8	5.3	3.7	6.3	2.8
기타	16	15	10.0	10.9	9.6	8.9	11.5	11	3.4	0.0	3.7	2.7	6.1
규모별 분포													
30인 미만	17	11	7.3	6.4	9.7	10.0	9.5	11	2.7	2.4	3.7	6.0	2.5
30~99인	170	117	8.2	8.3	8.0	8.3	7.8	129	3.9	4.0	3.6	3.9	3.2
100~299인	281	231	8.0	7.3	8.8	8.9	8.1	214	3.9	4.0	3.8	3.7	4.2
300~499인	93	80	8.3	8.3	8.3	8.7	7.0	75	4.2	4.4	4.2	4.2	4.1
500인 이상	151	130	8.5	7.8	8.9	7.9	10.0	110	3.3	3.1	3.4	3.5	3.3

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임금인상요구율이 0.9%포인트 높은 8.6%로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유통서비스업(8.9%)과 건설업(8.9%)에서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용자측이 근로자측에 제시할 임금인상률 또한 평균 3.8%로 2004년에 비해 0.3%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단체소속 사업체의 임금인상제시율은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0.2%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4.8%)과 전기전자정밀업(4.4%), 금속자동차운송업(4.2%) 순으로 임금인상제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5년 임단협교섭에서 사용자측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임금·고용 이외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3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용안정(27.8%), 임금인상(25.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로자측이 2005년 임금교섭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과제는 절반 이상의 사업체에서 고용안정(51.5%)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임금인상(25.8%), 임금·고용 이외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16.4%)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자측은 임금인상을 포함한 근로조건보다는 고용안정(job security)에 더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V. 결 론

지금까지 사업체패널조사를 통해 2004년 임금교섭 전과정을 살펴보았다.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사업체의 대다수가 기업별 교섭을 하는 와중에 산업별 교섭 등 공동교섭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별 교섭에 대응하는 교섭기관과 교섭당사자, 협약의 효력과 구속력 등에 대한 법제도적인 정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사양측이 요구(제시)한 임금인상률은 각각 통상임금 기준 10.3%, 4.1%였으며, 임금교섭과정을 거쳐 타결된 최종임금인상률은 5.5%로 분석되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노사양측의 요구(제시)임금인상률 격차가 클수록 교섭비용인 교섭횟수가 잦아지고 교섭기간이 장기화되고, 상급단체소속 사업체일수록 격차가 심하여 교섭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조성취율을 통해 2004년 임금교섭 결과가 사용자측에 효과적이었음을 발견하였다. 즉, 최종타결된 임금인상률이 사용자측이 제시한 임금인상률 4.1%에서 29.7%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측보다는 사용자측에 유리한 임금교섭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상급단체소속 사업체의 노조성취율은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임금교섭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임금교섭은 노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상생하는 협조적 노사관계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는 임금교섭시 노사간의 자율적 교섭능력의 증대가 향후 합리적인 임금교섭 관행의 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원활한 임금교섭을 위한 외부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패널**